

“일단 관망”... 민주 ‘조기 등원론’ 한풀 꺾이나

현장과 시각

‘죽음의 밥상’을 치우자



채희중

사회2부 차장

수개월 사이 국민은 모든 먹을 거리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경험을 겪었다. AI가 전곡을 휩쓸면서 닭, 오리에 대한 기피증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다. 식탁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닭, 오리, 쇠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하며, 그런 먹을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말인가?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세계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얼마 전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전남지역 축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녹색축산’ 실천 대회를 가진 것이다.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의 안전한 생육을 위해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지는 취지다. 우리에 갇힌 채 사육되는 소들이 마당에서 뛰놀며 클 때, 생육도 빠르고 고기의 질도 좋아진다는 논리다. 특히 가축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면 AI나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지는 녹색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인지 박준영 전남지사는 얼마 전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베스트셀러인 ‘죽음의 밥상’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이 책은 대량 밀식과 환경적 사육, 비윤리적 도축 등 주로 가축의 생명 윤리에 대해 고찰한 책이지만 인간에게 공급되는 육류가 얼마나 해로운 지를 보여준다.

이 책에 실린 미국산 쇠고기 생산과정의 한 단락을 소개한다.

“아미한테서 분리된 송아지는 좁은 축사로 옮겨진 뒤, 귀 뒤쪽에 합성호르몬 인슐린을 이식 받는다. 운동선수의 근육강화용 테스토스테론과 비슷한 약품인데 유럽에선 금지되었다. 먹이는 주로 옥수수대고, 거기에 항생제가 들어간다.”

으시시한 미국 축산의 속사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가축의 사육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과 점검이 필요하다.

한 마리당 A4용지 한 장 크기도 안 되는 공간을 차지한 수천마리의 닭들이 몰려 있는 비닐하우스를 들어가 보면 사람이려면 누구라도 느낄 수 없을 답답함과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토하거나 상당 시간 두통에 시달린다.

한 마리라도 더 키우려는 욕심이 AI 사태는 물론 아이들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제 먹을 거리의 위험 요소가 외부만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 거리 생산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물론 친환경지역의 전남의 새로운 전략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aek@kwangju.co.kr

면 당이 안팎의 흐름에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라면 조기등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당내에서는 원내대인을 중심으로 여당과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등원교섭을 계속하려는 움직임도 없지는 않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번 주 중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 하고 접점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내에서는 이와는 상관없이 조기 등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신중론에 밀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원논의는 한나라당과의 등원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명분 없고 全大 일정 접친다”...孫대표도 수위 낮춰

‘원혜영-홍준표’ 협상 결과 따라 조기 등원 가능성

해서 정치를 파국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강연 직후 기자들의 ‘대표의 조기 등원론에 대해 당 내에서 앞서간다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앞서 나가진 뭐가 앞서 나가느냐.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다. 내가 내일 당장 들어가자고 그랬느냐”고 답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손 대표와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등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기와 전략·전술에 대해 의원들 중

에 차이가 있다”면서 “재협상하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가족연명 병행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역시 이날부터 전대 경선모드로 접어들면서 등원론이 들어설 여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주말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당이 안팎의 흐름에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라면 조기등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 우리 출신-구 민주계, 지분싸움 과열

민주 전남도당 대의원 선정 잡음

통합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여수시 을과 광양시, 함평·영광·장성 등 전남도 내 일부 지역구에서 옛 민주당 계열 당원들이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의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오는 24일 치러지는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5일 전인 19일까지 전당대회 개최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잡음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을과 광양시 등 일부 지역구에서 옛 민주당 소속 당원들은 18일 “대의원 선정위원회와 대의원 선정과정에서 소수 계파인 옛 민주당 소속 당원들을 각각 30%와 40%씩 배려하도록 한 최고위원회 의결사

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의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대의원 선정을 둘러싼 마찰은 옛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계파싸움이 치열한데다, 차기 자치단체장 선거 상황까지 고려한 계파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지난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대의원 선정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지고 있다”며 “중앙당과 도당, 지역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9일 중으로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국창근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현역인 주승용 의원(여수시 을)도 유운근 의원(광양시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홍행기자 redplane@



18일 통합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후보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 경쟁’ 본격 레이스

추미애·김진표, 광주 찾아 지지 호소

통합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6 전당대회 경선 레이스가 18일 본격 시작됐다.

전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민주당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선전의 시작을 알렸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여협의 건의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여연과 사무실 공동 활용으로 여성 화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회에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해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민주당이 결단력과 책임감을 갖춘 지도체제를 구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고위원에 나선 김진표 후보도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과 호남을 연결해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주춧돌이 되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후보들은 19일 제주 도당대회에 참석한다. 당 대표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추미애에 정대철 후보 단 단일화다. 현실적으로 각자 조직과 세력만으로는 정세균 후보와 맞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순환구 대표의 선택도 관건이다. 손 대표 측 일부에서는 추미애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패배할 경우 갖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손 대표 측 의원들 대부분이 이미 정세균 후보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를 되돌리기에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당 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데다 대의원의 30%를 배정받은 구 민주당계 표심의 향배도 관건이다. 접전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지난 15일 한국인텔리사처에 의뢰해 민주당 당원적 대의원의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표 후보 지지도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43.5%로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은 추미애 후보(24.1%), 정대철 후보(16.4%)의 순이었다.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에서는 송영길(47.1%), 박주선(41.0%), 김민석(32.8%), 안희정(16.7%) 후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김지용 기자 jkpark@

광주여성회관 운영 갈등 시의회로 비화

광주여성단체회관 운영을 둘러싼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갈등이 광주시의회로 번졌다.

양혜령(민주·동구 1) 의원은 18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여성단체 회관을 여협 소유로 등기한 것은 비관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여성단체회관이 기부채납 방식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무상임대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 광주지역 여성단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고부금을 지원한 것을 사유재산으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여협의 건의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여연과 사무실 공동 활용으로 여성 화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OUR.com

37년 전통의 노하우를 가진 국내최고 종합여행기업

200만명 외국관광객유치·5억달러 획득 국내관광 활성화, 간접해외여행 선도

무안 ⇄ 상해 동반자할인 7% 할인

Family Tour:

- 신상해, 항주, 주장 4일 ₩899,000-959,000
- 상해, 신안, 제주, 제주, 제주 4일 ₩859,000-919,000
- 상해, 제주, 제주, 제주, 제주 4일 ₩569,000-789,000

Friend Tour:

- 신상해, 항주, 제주 4일 ₩679,000-749,000
- 신상해, 항주, 서당 5일 ₩849,000-919,000
- 정릉상해, 항주, 제주 4일 ₩399,000-549,000

일본 인천출발:

- 여름방학 특별전세기 가족여행 특선
- 동해, 북해도 환상여행 4일 ₩1,390,000 - ₩1,790,000
- 동해, 북해도 완전일주 5일 ₩1,450,000 - ₩1,790,000

동남아 인천출발:

- 휴양+관광 베트남 다낭, 호이안, 후에 5/6일 ₩699,000-799,000
-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5/6일 ₩799,000-1,190,000
- 파타야, 방콕 5/5일 ₩699,000
- 파타야, 방콕, 히로니랜드 4일 ₩699,000

유럽 인천출발:

- 유럽 4개국 10일 ₩3,590,000-5,090,000
- 유럽 6개국 12일 ₩4,790,000-5,390,000
- 유럽 5개국 9일 ₩2,890,000-4,290,000
- 유럽 12일 ₩4,790,000-6,890,000

남태평양 인천출발:

- 해안스포츠의 천국 케언즈 5/6일 ₩1,890,000-2,090,000
- 호주, 호주, 케언즈, 시드니, 멜버른 7/9일 ₩2,890,000-3,190,000
- 호주, 호주, PIC 골드팩 5일 ₩1,149,000-1,179,000
- 호주, 호주, 온워드(오션뷰) 비치 5일 ₩929,000-1,049,000